

After What Remains

한해솔

도예를 전공한 배경을 가진 서영의 작업은 자연의 순환 과정 속 특정한 한순간을 포착하고,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내는 작업처럼 느껴진다. 《From What Remains》(2025) 작업에서 서영은 마치 도자기처럼 반죽되고 구워져 마트라는 공간에 놓인 뒤, 결국 팔리지 않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빵들을 가져온다. 빵 위에 자수를 놓기 위해서는 너무 마르지도, 너무 촉촉하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. 서영은 그 미묘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빵에 개입한다.

이 과정은 빵이라는 존재가 밀이었다가 반죽되고, 구워지고, 매대에 놓였다가 소비되지 못한 채 서서히 말라가고, 결국에는 바스러질 운명에 놓이는 일련의 순환 과정 속에서 아주 짧은 한순간을 포착해 장식하는 행위처럼 보인다. 그러나 작가에게 이 자수는 단순한 장식이라기보다 '수리(repair)'의 개념에 가깝다. 이는 이전 작업들에 비해 자연의 순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로 읽힌다.

한편, 빵을 주식으로 삼지 않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떠올려보면, 빵 위에 꽃 자수를 놓는 행위는 다소 서구적인(global Western) 감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. 많은 아시아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주식은 빵이 아니라 쌀이다.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하며 누구나 식문화의 차이를 체감하게 되는데, 아시아권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역시 빵과 쌀의 차이일 것이다.

그 위에 유럽과 아시아 문화권 모두에서 여성의 핸드크래프트(handcraft), 느린 노동의 시간을 연상시키는 자수가 한 땀 한 땀 놓여 있다.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식이나 수리를 넘어, 여성의 이주와 그에 수반되는 감각을 떠올리게 한다. 서로 다른 식문화와 노동의 방식, 그리고 여성적 돌봄의 시간이 빵이라는 매개 위에서 교차하며, 이 작업은 이동과 적응,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몸의 감각이 드러난다고 느껴지기도 한다.